

## 신문기사를 통해 본 이혼의 시대별 양상에 대한 내용분석(I)

- 1920~1930년대 조선·동아일보를 중심으로 -

이 강 이\*(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기금조교수)

최혜영(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혼 현상 속에서 이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와 가치 판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이혼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아왔는지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일반 대중의 인식 형성에 대한 전파력이 높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1920~30년대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등장하는 이혼관련 기사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분석을 위해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혼문제의 주제 유목을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현황, 이혼원인 및 정보제공의 4개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주제유목별로 하위영역을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기사제목과 내용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유목 분류 작업 결과, 총 432건의 기사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유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혼원인(205건, 47.5%)이 20년대(126건, 54.5%)와 30년대(79건, 39.3%)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보제공(109건, 25.2%), 이혼현황(64건, 14.8%), 이혼에 대한 태도(54건, 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대한 태도 유목은 30년대(10건, 5.0%)에 비해 20년대(44건, 19.1%)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정보제공 유목에 해당하는 기사는 20년대(30건, 13.0%)에 비해 30년대(79건, 39.3%)에 많이 등장하였다.

내용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첫째, 1920~30년대 동안 가장 많이 기사화 된 내용은 이혼원인에 대한 것으로 부부불화로 인한 이혼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시대 사조가 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둘째, 이혼 문제를 둘러싸고 당시의 신문이 보인 태도는 비판과 수용, 중립의 태도가 골고루 등장했는데, 이러한 다양성은 전통과 근대의 상반되는 의식이 경합하던 당시의 과도기적 시대 특성을 반영한다. 셋째, 1930년대에 접어들면 이전에 비해 이혼에 대한 관심의 양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깊이 있게 이혼을 다루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혼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 시도나 이혼 후 자녀문제에 대한 관심이 등장한 점, 이혼관련 법률상식이나 상담코너를 통한 이혼문제예방 및 적응 등의 정보제공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 분석을 통해, 현대 한국사회의 핵심적 특징으로 지적되는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 탈현대적 요소의 공존이 20~30년대의 이혼 문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사회적 맥락이 이혼 문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음도 발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변화와 맥락 속에서 이혼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